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박 찬 희	장 혜 인 [‡]	김 지 범	박 태 영	황 혜 선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본 연구는 빈곤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청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빈곤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누적위험모델(cumulative risk model)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의 다차원적인 영향을 빈곤 측정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가구소득이 2022년 한국 기준중위소득의 60%(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미만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544명(남성 242명, 여성 302명)을 표집하여 빈곤누적위험, 비자살적 자해,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측정하였다. 빈곤누적위험은 가구소득, 교육수준, 고용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갈등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청년의 응답을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빈곤누적위험은 청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아가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유의한 순차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빈곤 환경에서 더 많은 위험인자를 경험할수록 비자살적 자해를 더 빈번히 보임으로써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수준이 상승하여 자살행동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청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개인 내적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살행동에 대한 환경적 위험요인과 개인 내적 위험요인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빈곤, 빈곤누적위험, 비자살적 자해,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

[†] 본 연구의 일부는 2023년 WCCBT(10th World Congres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에서 포스터 발표 되었음.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2S1A5A2A0305119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혜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70만 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청년층은 그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국내의 경우 20대 사망원인의 과반수가 자살이며, 20대의 자살률은 2017년부터 2021년에 걸쳐 약 43% 증가하여 여러 연령층 가운데 가장 가파른 폭으로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통계청, 2023). 청년층의 자살은 사망자가 생전 경험한 극심한 괴로움을 반영함은 물론 자살사망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nchin & Doran, 2018). 완수된 자살의 경우 사망자가 생전 어떠한 심리적 고통 및 환경적 역경을 경험했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에, 연구자들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살시도(nonfatal suicide attempt)를 포괄하는 개념인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에 초점을 맞추고(Nock et al., 2008b; Silverman, Berman, Sanddal, O'Carroll, & Joiner, 2007),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자살행동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규명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Franklin et al., 2017). 자살행동은 완수된 자살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특히 초기 성인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자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ock et al., 2008b).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1년 동안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비율은 약 10.6%, 자살시도를 경험하는 비율은 약 1.2%로 추정된다(Mortier et al., 2018). 이처럼 청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행동은 완수된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므로(Bostwick, Pabbati,

Geske, & McKean, 2016; Nock et al., 2008a), 청년층의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개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Pirkis et al., 2023).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살은 주로 개인 내적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Ordóñez-Monak, Arroyave, & Cardona, 2021; Sinyor, Tse, & Pirkis, 2017), 최근 다수의 연구자는 공중보건 관점(public health perspective)에서 환경적 위험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전략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자살행동에 대한 개인 내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Ordóñez-Monak et al., 2021; Zhu et al., 2022).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빈곤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빈곤은 자살행동에 대한 핵심적인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Iemmi et al., 2016; Silva, Loureiro, & Cardoso, 2016). 빈곤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누적은 개인의 신경학적 및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데(Evans & Kim, 2012, 2013), 빈곤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 또한 부족하므로 이들의 심리적 고통은 만성화되어 자살행동으로 발전하기 쉽다(Gadalla, 2009; Kim et al., 2013; Ong & Thompson, 2019). 세계보건 기구에서 21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정신건강설문조사(World Mental Health Surveys) 결과 빈곤은 자살행동이 발생할 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Borges et al., 2010), 이러한 관계는 중단연구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hompson, Alonzo, Hu, & Hasin, 2017). 그러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살펴보면, 검토에 포함된 상당수의 연구에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관찰되었으며(Iemmi et al., 2016), 소수의 연구에서는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관찰되기도 하는 등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Dai et al.,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간의 불일치는 빈곤의 측정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안되었다(Bantjes et al., 2016; Thompson et al., 2017).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 한정하여 빈곤을 측정하거나, 교육수준이나 고용상태와 같은 단일요인을 빈곤의 간접지표(proxy)로 활용해 왔다(Cooper, Lund & Kakuma, 2012; Iemmi et al., 2016). 그러나 빈곤은 개인의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Cooper et al., 2012), 최근 연구자들은 빈곤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찬희, 장혜인, 김지범, 박태영, 황혜선, 2023; Bantjes et al., 2016).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 이론(Social Determinants Theory of Mental Health)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은 빈곤 환경의 여러 층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Fisher & Baum, 2010), 그러한 요인으로 낮은 소득 및 교육수준, 무직,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 갈등, 부족한 사회적 지지 등

이 제시된 바 있으며 각각의 요인들은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Fisher & Baum, 2010; Zhu et al., 2022).

다차원적 빈곤의 각 요인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낮은 가구소득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자살행동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국가의 대규모 표본 대상 연구에서 가구소득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Sueki, 2019; Toprak, Cetin, Guven, Can, & Demircan, 2011). 두 번째로, 낮은 교육수준은 향후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한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Currier et al., 2021; Kim, Kim, Choi, Lee, & Park, 2016). 세 번째로, 개인의 실업은 개인의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자살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Amiri, 2022; Paul & Moser, 2009). 네 번째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Evans, Wells, & Moch, 2003), 최근 국내 연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인의 자살생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며(Lee, 2022), 열악한 주거환경이 자살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다섯 번째로,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들은 가족 갈등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Alvarez-Subiela, Castellano-Tejedor, Villar-Cabeza, Vila-Grifoll & Palao-Vidal, 2022), 이러한 가족 갈등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Wagner, 1997).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Miller, Esposito-Smythers, & Leichtweis, 2015), 빈곤은 개인의 원활한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한하여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에 따라 개인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Gallie, Paugam, & Jacobs, 2003). 따라서 빈곤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자살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자살행동에 대한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은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더욱 집약되어있는 경향이 있으며(Raver, 2004), 빈곤한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에 누적적으로 노출된다(Evans, Li, & Whipple, 2013).

빈곤의 다차원적이고 누적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누적위험모델(cumulative risk model)을 적용해볼 수 있다(Rutter, 1979, 1981). 누적위험모델은 단일한 위험요인에 비해 다수의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더 크게 악화시키며(Evans et al., 2013),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에서 나타나는 개인차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Evans, 2004). 누적위험모델에서 ‘누적위험’은 개인의 환경에 분포하고 있는 위험요인의 수로 정의되며, 누적위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위험요인은 통계적 또는 개념적 기준에 따라 이분화된 후 합산된다(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빈곤한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에 분포하는 위험요인에 누적위험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빈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빈곤 측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위험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 측정오류가 낮다는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Evans et al., 2013). 누적위험모델은 자살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위험모델을 적용하여 학대경험과 부모의 죽음 등과 같은 자살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의 수와 자살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가 기저선의 자살행동을 통제한 이후에도 1년 후의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uver, Orkin, Boyes, & Sherr, 2015). 국내에서도 아동기의 불운한 경험의 수가 높을수록 성인기에 자살시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김은희, 이인혜, 202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빈곤한 사람의 생태학적 환경에 분포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요인의 수를 합산하여 ‘빈곤누적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빈곤누적위험이 청년층의 자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하여,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빈곤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적 및 금전적 제약이 따르기에(Bantjes et al., 2016), 빈곤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개인 내적 기제를 조명하여 개입의 표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Ordóñez-Monak et al.,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빈곤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자살적 자해는 죽으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주로 피부를 피가 날 때까지 긁는 행위, 피부를 태우는 행위, 신체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거나 긁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Klonsky, 2007; Nock & Prinstein, 2004). 비자살적 자해는 자기 상해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자살시도와 유사성을 지니지만, 자살시도는 죽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동반하는 반면 비자살적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Nock & Favazza, 2009). 전통적으로 비자살적 자해는 경계성 성격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나(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비자살적 자해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아닌 다른 정신질환을 지닌 임상군뿐만 아니라 비임상군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왔다(Klonsky, 2011). 예를 들면, 미국 연구에서 초기 성인기에 속한 사람의 약 13.4%가 최소 한 번 이상 비자살적 자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wannell, Martin, Page, Hasking, & St John, 2014),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8~29세의 연령 집단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기 성인기에 발생하는 비자살적 자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시사되었다(Liu, 2023).

나아가 비자살적 자해는 우울, 불안, 경계성 성격장애와 같은, 자살행동에 대해 잘 알려진 위험 요인에 비해 자살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사회적 및 학문적 관심을 받아 왔다(Klonsky, May, & Glenn, 2013).

중단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는 측정 시점에서의 자살행동 및 이후의 자살행동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Whitlock et al., 2013), 다른 정신질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이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ekens et al., 2018). 이처럼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이며,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Hamza, Stewart, & Willoughby, 2012), 자살행동의 발생에 있어 비자살적 자해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매우 드문 실정이나, 최근 몇몇 연구들은 빈곤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수행된 영국 연구에서는 빈곤 환경에 처한 성인이 비자살적 자해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며(Liu, 2023), 이러한 패턴은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위험이 높은 초기 성인기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청년층 대상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은 집단과 두 번째로 낮은 집단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Park, In, & Hur, 2022). 뉴질랜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박탈(socioeconomic deprivation)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유의한 관련이 보고되었다(Robinson et al., 2017).

빈곤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선행근거를 종합하여 빈곤이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지는 가설적 경로를 제시해보자면 다음

과 같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밝히며, 역기능적 정서조절전략으로서의 비자살적 자해의 기능에 주목하였다(Hasking, Whitlock, Voon, & Rose, 2017; Nock & Prinstein,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들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지목되었고(Yurkowski et al., 2015), 이러한 관계는 종단연구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Ewing, Hamza, & Willoughby, 2019). 빈곤은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빈곤 환경에서 경험하는 누적적인 스트레스는 정서조절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기의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Kim et al., 2013). 나아가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실용적 가설(pragmatic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비자살적 자해가 정서조절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큰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일 수 있다(Nock,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비자살적 자해는 다른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 비해 쉽게 선택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내적 위험요인으로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있다.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fearlessness of death)와 고통 감내력(pain toleranc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살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Joiner(2005)가 제시한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PTS)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로 거스르기 힘든 자기 보호에 대한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살행동을 쉽게 보이지 않는데, 고통스럽거나 자극적인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개인들은 자살행동에 수반되는 두려움과 고통에 점차 습관화됨에 따라 자살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살잠재력을 습득하게 된다(Joiner et al., 2009). 다수의 연구에서 습득된 자살잠재력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Christensen, Batterham, Soubelet, & Mackinnon, 2013; Joiner et al., 2009). 최근 국내 노인 연구에서도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모두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해선, 배성만, 2023).

빈곤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몇 가지 근거를 통해 빈곤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높이는 고통스럽고 자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지목된 바 있다(Van Orden et al., 2010). 이러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빈곤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van Ijzendoorn et al., 2020), 구체적으로 빈곤한 가구의 부모는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한 정서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서적 소진은 자녀를 향한 물리적 폭력 및 방임 등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oskam, Vancorenland, Avalosse, & Mikolajczak, 2022). 또 다른 요인으로 개인의 충

동성을 꼽을 수 있다(Van Orden et al., 2010). 충동성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유의한 연관은 다양한 표본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된 바 있는데(Bender, Gordon, Bresin, & Joiner, 2011; Van Orden et al., 2010), 이러한 충동성은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개인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Lynam et al., 2000).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빈곤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특히 자신의 충동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Raver et al., 2011).

또한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고통을 야기하는 자기 상해적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Joiner, Ribeiro, & Silva, 2012). 구체적으로, 반복적인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이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습관화로 이어져, 점차 치명적인 자살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Muehlenkamp & Gutierrez, 2007).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횡단연구(Matney et al., 2018) 및 종단연구(Willoughby, Heffer, & Hamza, 2015)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지지되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매개효과가 다양한 표본에 걸쳐 일관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김초롱, 이승환, 장혜인, 2018; 이영지, 육성필, 2020). 종합하면, 빈곤은 청년층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빈곤

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의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으며(Iemmi et al., 2016), 대부분의 연구에서 빈곤을 소득이나 재정 상태와 같은 경제적 차원으로 축소하거나 단일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적절히 검증하지 못하였다(Cooper et al., 2012; Thompson et al., 2017). 또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거쳐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Bantjes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자살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비자살적 자해와, 대표적 자살 이론인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에서 보다 치명적인 자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습득된 자살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각각의 개인 내적 위험요인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누적위험이 청년층의 자살행동(자살생각, 자살시도)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빈곤누적위험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층의 자살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를 비자살적 자해가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셋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를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넷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를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빈곤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의 누적이 청년층의 비자살적 자해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기에, 표집 과정에서 자신의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한국 기준중위소득의 60%(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선별하여 표집을 진행하였다.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을 스크리닝 문항으로 설정하여,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한국 기준중위소득의 60%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적용하여 국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총 544명(여성 302명, $M_{age}=25.99$, $SD_{age}=4.19$)의 연구참가자를 표집하였고, 표집된 모든 인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표집을 진행하였으며(승인 번호: SKKU 2022-12-029-001), 모든 연구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안내문 및 연구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에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설문 참여 전 질문지에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만약 이러한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의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았다. 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을 마지막까지 완료한 참가자들은 현금으로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 몇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의 적립금을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빈곤누적위험(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누적위험모델의 관점을 적용한 해외 선행 연구에서 빈곤 관련 위험요인으로 자주 포함된 변인과 국내 연구에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변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섯 가지 변인(가구소득,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 적절성, 가족 갈등, 사회적 지지)을 빈곤누적위험의 구성 요인으로 선정하였다(변금선, 이해림, 2022; Evans et al., 2013). 각 빈곤 요인은 고위험은 '1', 저위험은 '0'으로 채코딩되었으며, 빈곤누적위험 지표는 여섯 요인의 총합으로 산출되었다. 빈곤누적위험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누적적으로 경험한 빈곤 관련 위험요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빈도분포와 고위험 및 저위험 집단의 분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월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원 수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 균등화 소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OECD, 2020). 누적위험 점수를 구성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를 이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편차를 기준점으로 사용한 선행연구와 일관적으로(Evans, 2003; Trentacosta et al., 2008), 자신이 속한 가구의 가구 균등화 소득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 낮

표 1. 빈곤누적위험 하위요인 및 응답 분포

빈곤 관련 위험요인	N(%)
가구소득	
고위험(가구소득 평균-1SD 미만인 집단)	105(19.3%)
저위험(그 외)	439(80.7%)
교육 수준	
고위험(17.1%)	
중학교 졸업 이하	4(0.7%)
고등학교 졸업	89(16.4%)
저위험(82.9%)	
2년제 대학교 재학	21(3.9%)
2년제 대학교 졸업	66(12.1%)
4년제 대학교 재학	166(30.5%)
4년제 대학교 졸업	161(29.6%)
대학원 재학	24(4.4%)
대학원 졸업 이상	13(2.4%)
고용 상태	
고위험(무직이면서 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	149(27.4%)
저위험(그 외)	395(72.6%)
주거 적절성	
고위험(최저주거기준 한 가지 이상 미충족)	345(63.4%)
저위험(최저주거기준 모두 충족)	199(36.6%)
가족 갈등	
고위험(가족갈등 평균+1SD 이상인 집단)	91(16.7%)
저위험(그 외)	453(83.3%)
사회적 지지	
고위험(사회적 지지 평균-1SD 미만인 집단)	67(12.3%)
저위험(그 외)	477(87.7%)
빈곤누적위험	
0	87(16.0%)
1	208(38.2%)
2	148(27.2%)
3	64(11.8%)
4	33(6.1%)
5	2(0.4%)
6	2(0.4%)

주. 빈곤누적위험은 각 변수를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이분화하여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 1, 저위험으로 분류된 경우 0을 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값임.

은 경우 1점, 그 외에 0점이 할당되었다.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재학,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1점, 최종학력이 2년제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 0점이 배정되었다.

고용 상태. 개인의 직업에 대한 응답(무직, 회사원, 전문직, 공무원·군인, 농축산·어업·임업, 독립사업자·자영업자, 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전업주부, 학생, 기타)과 형식교육 참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행연구와 일관적으로 현재 무직이면서 어떠한 형식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1점, 그 외의 경우 0점을 배정하였다(OECD, 2023).

주거 적절성. 참가자의 주거 환경이 국내 주택법 상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주거 적절성을 측정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와 필수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도록 한 가지 이상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점, 모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경우 0점이 배정되었다(변금선, 이혜림, 2022).

가족 갈등. 가족 갈등의 경우 Moos와 Moos(1981)의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FE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박정희(2004)의 한국판 가족환경척도에서 가족 갈등에 관한 문항을 선별하여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0.877$). 가족 갈등 점수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 1점, 그 외에 0점이

할당되었다.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윤혜정(1993)이 부분 수정한 사회적 지지 자각 척도 총 25문항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0.979$).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총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점수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1점, 그 외의 경우 0점이 할당되었다.

비자살적 자해. Lloyd-Richardson, Kelly와 Hope(1997)가 개발한 자해 기능 평가지(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를 권혁진과 권석만(2017)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비자살적 자해를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41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과 빈도, 치료 여부를 묻는 12문항, 자해 시의 통증 정도와 물질 사용 여부를 묻는 6문항, 비자살적 자해를 수행한 목적을 묻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신 횟수 및 여부를 측정하는 4번 문항의 경우 DSM-5 진단기준에서 문신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과 빈도는 0점('전혀 없음')에서 6점('6회 이상')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빈도의 총합을 비자살적 자해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1이었다.

습득된 자살잠재력.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Van Orden 등(2008)이 개발한 습득된 자살잠재력 척도(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ACSS)를 조민호(2010)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소(fearlessness about death), 통증 감내력(pain tolerance)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7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7)가 개발한 자살생각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신민섭(1992)이 한국어로 번안한 뒤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 서미순(2005)이 총 30문항 중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채택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Reynolds가 기존에 개발한 질문지는 7점 Likert 척도였으나, 수정 과정을 거쳐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자가 보고하는 자살생각의 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1이었다.

자살시도. 자살시도를 측정하기 위해 Posner, Oquendo, Gould, Stanley와 Davies(2007)가 개발한 콜롬비아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C-SSRS)를 이창수(2011)가 번안하고 김은진(2015)이 재구성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C-SSRS는 응답자가 지닌 자살위험성을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된 면담도구이며,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장한아 외, 2014). 크게 자살생각과 자살행동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자살행동은 실제적 자살기도(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경우), 방해된 자살기도(죽고자 하는 의도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외부적 방해로 인해 중단된 경우), 중단한 자살기도(죽고자 하는 의도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의로 중단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행동, 자해행동(자살할 의도 없이 자해를 행한 경우)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행동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네 문항으로 자살시도를 측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의적으로 중단한 자살시도,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행동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적 자살기도, 방해된 자살기도만을 자살시도로 정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실제적 자살기도와 방해된 자살기도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응답한 뒤, 경험이 있다면 경험 횟수에 대해 추가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이 1회 이상 있을 경우 1, 자살시도 경험이 없을 경우 0으로 이분화한 응답자들의 자살시도 여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18)의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여 분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1. 연령	-					
2. 가구소득	.076	-				
3. 빈곤누적위험	.033	-.309***	-			
4. 비자살적 자해	-.075	.062	.208***	-		
5. 습득된 자살잠재력	-.091*	.016	-.020	.159***	-	
6. 자살생각	.118**	.016	.298***	.439***	.288***	-
평균	25.989	98.560	1.563	0.655	52.564	39.292
표준편차	4.188	44.814	1.134	0.983	10.671	18.14

주. 가구소득의 단위는 만 원이며, 월소득 기준임. 가구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음. 비자살적 자해는 로그 변환됨. * $p < .05$, ** $p < .01$, *** $p < .001$.

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분석에 포함된 연구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자살적 자해,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생각, 자살시도 모두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성차가 보고되었음에 따라(Fox, Millner, Mukerji, & Nock, 2018), 본 연구에서도 주요 연구변인들에 대한 성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후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로 종속변수를 변경한 후, 비자살적 자해 및 습득된 자살잠재력 각각의 단순매개효과와 두 매개변수의 순차매개효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검

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비자살적 자해의 왜도가 3.672, 첨도가 16.383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한 첨도 및 왜도의 기준(왜도 2 미만, 첨도 7 미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따라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 Pearson 상관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 수행 시 비자살적 자해의 값에 1을 더하여 자연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로그변환(log-transformation)은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낮춰줌으로써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도록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이도영, 이훈진, 2023). 로그변환한 비자살적 자해의 왜도는 1.317, 첨도는 0.209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관계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들은 평균 약 1개 이상의 빈곤 관련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약 40%가 1회 이상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보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약 13%가 자살을 실제로 시도했거나 시도 도중 발생한 외부적 방해에 의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독립변수인 빈곤누적위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298, p<.001$, 매개변수인 비자살적 자해 및 습득된 자살잠재력과의 모든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39, p<.001$, $r=.288, p<.001$. 독립변수인 빈곤누적위험은 비자살적 자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8, p<.001$, 습득된 자살잠재력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20, ns$. 두 매개변수인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59, p<.001$. 참가자의 연령은 매개변수인 습득된 자살잠재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 $r=-.091, p<.05$,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r=.118, p<.01$, 이후 종속변수가 자살생각으로 설정된 모형의 분석에서 통제되었다. 가구소득은 독립변수인 빈곤누적위험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r=-.309, p<.001$, 매개변수인 비자살적 자해 및 습득된 자살잠재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r=.062, ns$, $r=.016, ns$,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16, ns$.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에 대해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습득된 자살잠재력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t=4.291, p<.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자살생각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2.339, p<.05$). 따라서 종속변수가 자살생각으로 설정된 모형의 분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단순매개효과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두 차례의 단순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4.691, p<.001$, 비자살적 자해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963, p<.001$. 그러나 습득된 자살잠재력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B=-0.133, ns$. 빈곤누적위험과 비자살적 자해를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 모델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3.628, p<.001$, 비자살적 자해 또한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1.104, p<.001$, 비자살적 자해가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자살적 자해를 예측 모델에 투입하였을 때 기존 모델의

표 3. 주요 변수들의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성별	평균	표준편차	df	t
빈곤누적위험	남성	1.550	1.166	542	-0.238
	여성	1.573	1.109		
비자살적 자해	남성	0.591	0.979	542	-1.349
	여성	0.705	0.985		
습득된 자살잠재력	남성	54.723	10.436	542	4.291***
	여성	50.834	10.559		
자살생각	남성	37.269	17.706	542	-2.339*
	여성	40.914	18.347		

주. 비자살적 자해는 로그 변환됨. * $p < .05$, *** $p < .001$.

설명량은 약 14% 증가했다. 또한 빈곤누적위험과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 모델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4.767$, $p < .001$, 습득된 자살잠재력 또한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579$, $p < .001$.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빈곤누적위험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모델에 투입됨에 따라 기존 모델의 설명량을 약 11% 증가시켰으나, 빈곤누적위험이 습득된 자살잠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각각이 지니는 단순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비자살적 자해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1.063$, 95% CI=[0.584, 1.585],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77$, 95% CI=[-0.558, 0.376].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빈곤누적위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빈곤누적위험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B=-0.467$, *ns*, 비자살적 자해는 습득된 자살잠재력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B=0.348$, $p < .001$. 최종적으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모델에 빈곤누적위험과 비자살적 자해,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3.847$, $p < .001$, 비자살적 자해 또한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941$, $p < .001$. 습득된 자살잠재력 또한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B=0.469$, $p < .001$.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최종 모델에 투입되면서 모델의 설명량을 약 21% 증가시켰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수치를 산출

표 4.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	R ²
					LL	UL		
비자살적 자해	성별	-0.033	0.528	-0.062	-1.070	1.004	7.388***	0.039***
	연령	-0.143	0.063	-2.274*	-0.266	-0.019		
	빈곤누적위험	0.963	0.230	4.189***	0.511	1.414		
습득된 자살잠재력	성별	-4.193	0.891	-4.704***	-5.994	-2.442	12.535***	0.085***
	연령	-0.245	0.106	-2.298*	-0.454	-0.036		
	빈곤누적위험	-0.467	0.394	-1.185	-1.242	0.308		
자살생각	비자살적 자해	0.348	0.073	4.783***	0.205	0.490	50.272***	0.318***
	습득된 자살잠재력	0.469	0.063	7.416***	0.345	0.593		
	성별	6.114	1.336	4.578***	3.491	8.738		
	연령	0.802	0.157	5.109***	0.494	1.111		
자살생각	빈곤누적위험	3.847	0.580	6.635***	2.708	4.986	22.963***	0.113***
	비자살적 자해	0.941	0.109	8.637***	0.727	1.155		
	습득된 자살잠재력	0.469	0.063	7.416***	0.345	0.593		
자살생각	성별	4.111	1.490	2.758**	1.183	7.039	22.963***	0.113***
	연령	0.530	0.177	2.994**	0.182	0.878		
	빈곤누적위험	4.691	0.649	7.229***	3.416	5.965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05$, ** $p<.01$, *** $p<.001$.

하고, 해당 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순차매개모형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매개효과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906$, 95% CI=[0.488, 1.379]. 그러나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19$, 95% CI=[-0.596, 0.174]. 마지막으로, 빈

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가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순차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157$, 95% CI=[0.056, 0.289].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B=3.847$, 95% CI=[2.708, 4.986],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

표 5.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B	S.E.	t	95% CI	
				LL	UL
총 효과	4.691	0.649	7.229***	3.416	5.965
직접 효과	3.847	0.580	6.635***	2.708	4.986
간접 효과 (total)	0.844	0.322		0.220	1.496
매개효과1: X→M1→Y	0.906	0.227		0.488	1.379
매개효과2: X→M2→Y	-0.219	0.195		-0.596	0.174
매개효과3: X→M1→M2→Y	0.157	0.061		0.056	0.289

주. X=빈곤누적위험, M1=비자살적 자해, M2=습득된 자살잠재력, Y=자살생각,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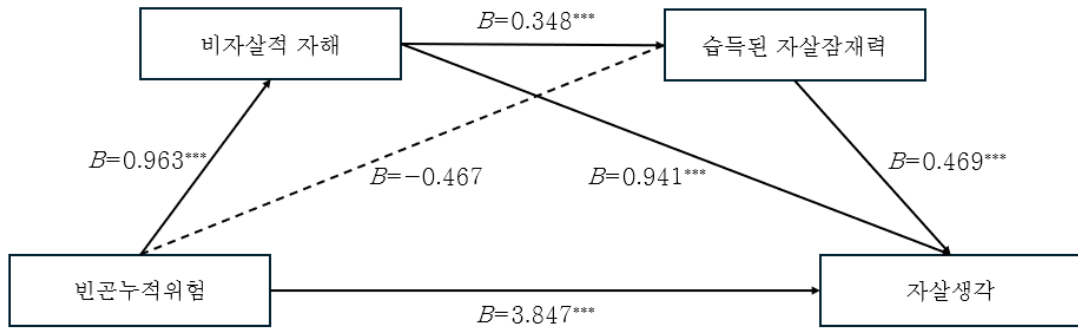


그림 1. 빈곤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주. 위 그림에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 $p < .001$.

재력은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최종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단순매개효과

자살생각과 달리, 자살시도는 연령 및 성별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자살시도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연령과 성별이 통제되지 않았다.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단순매개분석을 두 차례 수행하였다. 비자살적 자해의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종속변수를 자살시도로 하는 예측 모델의 1단계에서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503$, $p < .001$. 구체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빈곤 관련 위험요인의 수가 하나 증가할 때, 자살시도를 보일 가능성은 약 1.653배 높아졌다,

$OR=1.653$, 95% $CI=[1.327, 2.059]$. 또한 2단계에서 빈곤누적위험과 비자살적 자해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0.410$, $p < .001$, 비자살적 자해 또한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121$, $p < .001$. 매개효과의 수치를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비자살적 자해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B=0.114$, 95% $CI=[0.059, 0.190]$.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종속변수를 자살시도로 하는 예측 모델에 빈곤누적위험과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0.531$, $p < .001$, 습득된 자살잠재력 또한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059$, $p < .001$. 그러나 빈곤누적위험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0.187$, ns ,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

표 6.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분석

단계	독립변수	B	S.E.	Wald	p	OR	95% CI	
							LL	UL
1	빈곤누적위험	0.503	0.112	20.126	<.001	1.653	1.327	2.059
2	빈곤누적위험	0.409	0.120	11.651	<.01	1.506	1.190	1.905
	비자살적 자해	0.121	0.020	36.593	<.001	1.128	1.085	1.174
3	빈곤누적위험	0.428	0.123	12.149	<.001	1.534	1.206	1.951
	비자살적 자해	0.109	0.021	27.361	<.001	1.115	1.070	1.116
	습득된 자살잠재력	0.041	0.014	9.114	<.01	1.042	1.015	1.070

주.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해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11$, 95% CI=[-0.058, 0.041].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빈곤누적위험이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자살시

도를 예측하는 모델에 빈곤누적위험과 비자살적 자해,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빈곤누적위험은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0.428$, $p<.001$, 비자살적 자해 또한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109$, $p<.001$. 습득된 자살잠재력 또한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41$, $p<.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계산하고, 계산된 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순차매개모형에서, 비자살적 자해의 매개효과가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103$, 95% CI=[0.051, 0.179]. 그러나 습득된 자살잠재력

표 7.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B	S.E.	z	95% CI	
				LL	UL
직접 효과	0.428	0.123	3.486***	0.187	0.668
간접 효과 (total)	0.095	0.038		0.027	0.179
매개효과1: X→M1→Y	0.103	0.032		0.051	0.179
매개효과2: X→M2→Y	-0.022	0.020		-0.063	0.014
매개효과3: X→M1→M2→Y	0.014	0.008		0.003	0.032

주. X=빈곤누적위험, M1=비자살적 자해, M2=습득된 자살잠재력, Y=자살시도,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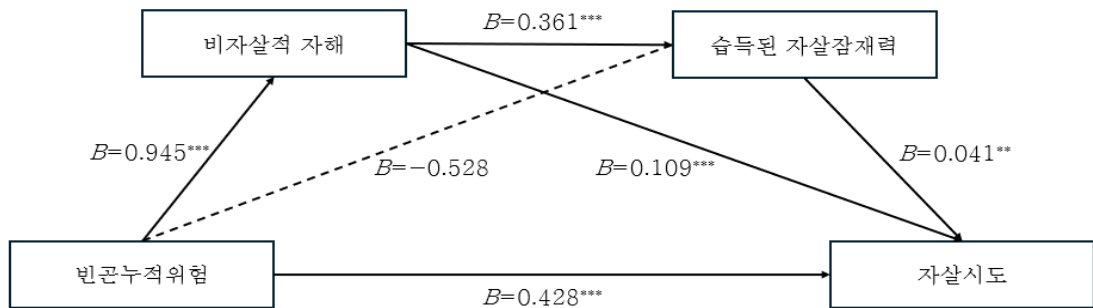


그림 2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주. 위 그림에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 $p < .01$, *** $p < .001$.

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22$, 95% CI = [-0.063, 0.014]. 마지막으로,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 간의 관계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가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순차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014$, 95% CI = [0.003, 0.032]. 자살시도에 대한 빈곤누적위험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B = 0.428$, 95% CI = [0.187, 0.668],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빈곤누적위험과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최종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누적위험모델의 관점에서 빈곤 환경에 집약되어있는, 자살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위험요인의 수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청년층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서적 소진이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살행동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합치된다(Evans & Kim, 2012; Tate, Sinha, & Wemm, 2023). 그러나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빈곤 측정방법에 따라 다소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여 왔는데(Iemmi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빈곤누적위험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는 빈곤누적위험이 단일한 차원에 한정된 기존의 빈곤 측정 지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Cooper et al., 2012), 이는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빈곤 측정 지표에 빈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과 부합하는 결과이다(박

찬희 외, 2023; Cooper et al., 2012; Iemmi et al., 2016).

그러나 ‘빈곤누적위험’이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누적위험모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빈곤누적위험을 구성하기 위해 포함된 모든 위험요인이 정신건강에 동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McLaughlin & Sheridan, 2016). 각 위험요인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요인을 경험하였더라도 해당 위험요인을 경험한 발달적 시기나 맥락에 따라 자살행동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Ellis, Sheridan, Belsky, & McLaughlin, 2022), 누적위험모델은 각 위험요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이 경험한 각 위험요인의 심각도의 차이에 따라 각 위험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누적위험모델은 각 위험요인을 이분화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각 위험요인의 상대적인 심각도를 빈곤 측정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참가자의 응답 양상을 기반으로, 여러 위험요인에 걸쳐 유사한 응답을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의 잠재적 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빈곤 관련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잠재계층분석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누적위험모델은 정신건강 변수에 대한 더 나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Lanza, Rhoades, Nix, Greenberg,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0), 빈곤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자살위험을 더욱 효과적으

로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빈곤 청년들의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Silva et al., 2016; Zhu et al., 2022), 추후 연구에서는 누적위험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빈곤 측정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비자살적 자해가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자살행동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지목된 비자살적 자해가 빈곤 환경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iu, 2023; Park et al., 2022). 비자살적 자해는 단기적인 정서조절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적으로 강화되어 점차 그 빈도와 심각도가 높아질 수 있고(Chapman, Gratz, & Brown, 200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살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Hanza et al., 2012; Nock & Prinstein, 2004). 해당 연구결과는 자살행동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인 환경적 위험요인 중 하나인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비자살적 자해가 매개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Schönfelder et al., 2021). 생애 초기부터 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된 개인들은 가장 극단적인 고의적 자기 상해 행동인 자살시도를 수행하기에 앞서, 자살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먼저 나타낼 수 있으므로(Ougrin et al., 2012, Schönfelder et al., 2021), 빈곤 환경에 처한 개인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조기에 스크리닝하고 비자살적 자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빈곤층의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3이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빈곤누적위험과 습득된 자살잠재력은 모두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빈곤누적위험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에 따르면 자살잠재력은 고통스럽고 자극적인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습득되지만(Joiner, 2005), 몇 가지 실증 연구에 따르면 모든 고통스럽거나 자극적인 경험이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Ribeiro et al., 2014; Seo & Kwon,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 가설이 기각된 이유와 관련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비자살적 자해와 같이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기 상해적 행동의 경우 자살행동에 수반되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습관화로 이어져 자살잠재력의 습득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나(Hamza et al., 2012), 빈곤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누적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습관화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빈곤은 물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기 상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습득된 자살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빈곤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Smith & Cukrowicz, 2010). 빈곤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한 가지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주체성(agency)이 고통스럽고 자극적인 경험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Mitchell, Cukrowicz, Van Allen, & Seegan, 2015). 후속 연구에서는 빈곤이 습득된 자살잠재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고통스럽고 자극적인 경험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빈곤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즉,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정적 관계는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에 따르면 자살행동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동반되기에 사람들은 자살행동을 쉽게 나타내지 않는데(Joiner, 2005), 비자살적 자해는 개인으로 하여금 상해 및 죽음과 관련된 고통과 두려움에 둔감하게 하여 자살잠재력의 습득을 촉진함으로써 자살행동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제안되었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본 연구는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대표이론인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의 작용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한편,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은 비자살적 자해가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Hamza et al., 2012; Joiner, 2005), 본

연구에서는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시도가 모두 고의적인 자기 상해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비자살적 자해는 향후 더욱 치명적이며 자살의도를 갖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게이트웨이 이론(The Gateway Theory)과 보다 일치하는 결과이다(Hamza et al., 2012; Whitlock et al., 2013). 두 이론은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행동에 선행하여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은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행동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게이트웨이 이론은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Hamza et al., 2012).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지니는 부분매개효과는 해당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이영지, 육성필, 2020; Gratz, Spitznagel, & Tull, 2020; Matney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습득된 자살잠재력과는 다른 요인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Matney et al., 2018), 후속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자살행동을 위한 개입의 표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비자살적 자해에 개입하기 위해 적응적인 정서 조절전략을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Hasking et al., 2017)과 빈곤층의 자살위험 발전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여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심리치료적 개입이 자살행동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Buerger et al., 2022; Robinson et al., 2017). 이때 빈곤층은 빈곤 환경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에 의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가장 제한되어 있고(Saxena, Thornicroft, Knapp, & Whiteford, 2007), 비자살적 자해는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Muehlenkamp & Gutierrez, 2007), 청소년기의 비자살적 자해가 청년기의 자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기반의 보편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조기 개입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Bürger et al., 2023; Robinson et al., 2017).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개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나(허지원, 2019), 최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DUDE(Du Und Deine Emotionen - You and Your Emotions)가 있다. DUDE는 인지행동치료와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제작된, 정서적 고통이나 심리적 불편감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조절전략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5주간 학교에서 진행되며 정서조절과 관련한 기술 코칭과 참가자들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집단 활동으로 구성된다. DUDE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할

당통제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Buerger et al., 2022), 여타 개입 방안과 달리 DUDE는 비자살적 자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새로이 개발됨과 동시에 훈련된 임상심리학자에 의해 실시되는 개입이기에 그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Buerger et al., 2022).

더하여, 본 연구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누적 위험의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외에도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시도의 방법 간의 이질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Hamza et al., 2012). 비자살적 자해는 자신을 깨물거나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고, 자신의 피부를 칼로 베는 등 그 강도에는 편차가 있으나 모두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자살시도는 약물 과복용이나 유독 가스를 통한 질식사와 같이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Andover & Gibb, 2010; Coppersmith, Nada-Raja, & Beautrais, 2017). 즉,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비자살적 자해가 유발하는 물리적 고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나, 고통에 대한 둔감화 이외에도 빈곤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Hamza et al., 2012). 이러한 경로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나, 빈곤은 자살행동의 주된 예측인자인 우울과 불안, 학습된 무력감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 빈곤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경로의 존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Evans & Cassells, 2014; Madigan & Daly, 2023; Ridley,

Gao, Schilbach, & Patel, 2020). 특히 빈곤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im et al., 2013; Liberzon et al., 2015),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은 비자살적 자해 및 자살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수정, 김종남, 2020; Wolff et al., 2019),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폭넓게 규명하여 빈곤층의 자살예방을 위한 최적의 표적에 대한 탐색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빈곤과 비자살적 자해, 그리고 빈곤과 습득된 자살잠재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초기 단계의 시도이다. 비자살적 자해 및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 또한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성요안나, 배유빈, 김소정, 2019; 이영지, 육성필, 2020).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누적위험을 구성하기 위해 연속변수를 이분화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기준점을 설정하였으나(Evans, 2003; Trentacosta et al., 2008), 이러한 이분화 방법은 표본에 따라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소 인위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Evans et al., 2013). 후속 연구

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누적위험모델이 지닌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빈곤 측정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개분석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선후관계를 가정하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변수 간의 선후관계를 확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습득된 자살잠재력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으로 검증하였으나, 과거의 자살행동은 비자살적 자해와 마찬가지로 자살잠재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래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적절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으므로(Hamza et al., 2012; Joiner, 2005),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수준은 일생에 걸쳐 변동할 수 있으므로(Cooper et al., 2012),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빈곤 수준의 변화가 비자살적 자해 및 습득된 자살잠재력, 자살행동의 변화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빈곤이 자살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요 연구변인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기억의 불확실성에 의해 응답에 편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자살행동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에(Money & Batterham, 2021),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면접과 같이 비

자살적 자해와 자살행동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고통 감내력의 경우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결과와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통해 측정한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Matney et al., 2018), 후속 연구에서는 압통계와 같은 실험실 과제를 통해 습득된 자살잠재력을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Anestis & Capron, 2016).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 환경에서의 누적된 스트레스 및 비자살적 자해를 통해 자살잠재력이 후천적으로 습득되어 그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모형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Smith 등(2012)이 개인의 자살잠재력은 유전적 및 기질적 요인파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습득된 자살잠재력 외에도 기질적(dispositional) 자살잠재력과 실제적(practical) 자살잠재력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Klonsky & May, 2015).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살잠재력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전적 및 기질적 기제를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살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살잠재력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습득된 자살잠재력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는 자살잠재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나(이영지, 육성필, 2020; Shim et al., 2022), 구성타당도와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Ribeiro et al., 2014; Rogers, Bauer, Gai, Duffy, & Joiner, 2021). 이에 따라 습득된 자살잠

재력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만을 측정하는 척도(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Fearlessness About Death)가 새롭게 구성된 바 있으나(Ribeiro et al., 2014), 해당 척도 또한 충분한 모델 적합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를 통해 측정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비자살적 자해 및 자살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류성은, 유성은, 2017; Gratz et al., 2020).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자살잠재력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하였다(Rogers et al., 2021). 후속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빈곤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누적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대표 이론인 자살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의 작용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빈곤 측정방식을 활용하여 빈곤 환경에 처한 청년의 자살행동에 빈곤 관련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과 자살률이 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는 이후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및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하여, 본 연구는 국가나 지역 차원의 빈곤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탐색한 유관 선행연구와 달리(Rehkopf & Buka, 2006), 동일

한 소득 수준을 지닌 국가나 지역 내에서도 개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개인적 수준의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지점이 있다(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살예방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인지 및 행동적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따라(Ordóñez-Monak et al., 2021), 환경적 요인이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표적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혁진, 권석만 (2017). 한국판 자해기능 평가지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187-205.
- 김은진 (2015). 우울과 충동성이 비행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이인혜 (2022). 불운한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4), 627-648.
- 김초롱, 이승환, 장혜인 (2018).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 비자살적자해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465-478.
- 류성은, 유성은 (2017). 자살생각자와 자살시도자를 구분해주는 심리적 특성: 습득된 자살잠재력과 기질 변인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4), 589-603.
- 박정희 (2004). 한국 가족환경척도(FES-K)의 타당화

-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2(2), 1-2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희, 장혜인, 김지범, 박태영, 황혜선 (2023).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5), 969-997.
- 변금선, 이해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보건복지부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영, 이훈진 (2023). 2차 분리개별화가 폭식 및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 능력 및 정서조절 곤란의 순차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2), 1-25.
- 이수정, 김종남 (2020).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751-1741.
- 이영지, 육성필 (2020). 비(非)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들의 자해가 습득된 자살실행력을 매개로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4), 757-776.
- 이창수 (2011). 컬럼비아 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 (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의 한국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순 (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요안나, 배유빈, 김소정 (2019).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내연구 개관: 2000-2018년 연구들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9(2), 251-280.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한아, 박은희, 전덕인, 박희정, 홍현주, 정명훈, 홍나래 (2014). 한국판 컬럼비아 대학 자살 심각도 척도 (C-SSRS)의 타당도 연구: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799-814.
- 조민호 (2010).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선, 배성만 (2023). 노인의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1), 41-62.
- 통계청 (2023).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act=view&dist_no=427216에서 자료 얻음.
- 허지원 (2019).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의 근거기반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415-426.
- Alvarez-Subiela, X., Castellano-Tejedor, C., Villar-Cabeza, F., Vila-Grifoll, M., & Palao-Vidal, D. (2022). Family factors related to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6), 9892. doi: 10.3390/ijerph1916989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iri, S. (2022). Unemployment and suicide mortality, suicide attempts, and suicide ideation: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51(4), 294-318.
- Andover, M. S., & Gibb, B. E. (2010). Non-suicidal self-injury, attempted suicide,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 inpatients. *Psychiatry Research*, 178(1), 101-105.
- Anestis, M. D., & Capron, D. W. (2016). An investigation of persistence through pain and distress as an ampl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 Affective Disorders*, 196, 78-82.
- Bantjes, J., Iemmi, V., Coast, E., Channer, K., Leone, T., McDaid, D., ... Lund, C. (2016). Poverty and suicide research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systematic mapping of literature published in English and a proposed research agenda. *Global Mental Health*, 3, e32. doi: 10.1017/gmh.2016.27
- Bender, T. W., Gordon, K. H., Bresin, K., & Joiner Jr, T. E. (2011). Impulsivity and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 of painful and provocative experienc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9(1-3), 301-307.
- Borges, G., Nock, M. K., Abad, J. M. H., Hwang, I., Sampson, N. A., Alonso, J., ... Kessler, R. C. (2010). Twelve-month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71(12), 1617-1628.
- Bostwick, J. M., Pabbati, C., Geske, J. R., & McKean, A. J. (2016). Suicide attempt as a risk factor for completed suicide: even more lethal than we kn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3(11), 1094-1100.
- Buerger, A., Emser, T., Seidel, A., Scheiner, C., von Schoenfeld, C., Ruecker, V., ... Romanos, M. (2022). DUDE—a universal prevention program for non-suicidal self-injurious behavior in adolescence based on effective emotion regulation: study protocol of a cluster-randomized controlled trial. *Trials*, 23(1), 1-16.
- Bürger, A., Von Schoenfeld, C., Scheiner, C., Seidel, A., Wasserscheid, A., Gad, D., ... Reiter, A. M. (2023). Universal prevention for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is scarce—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iatry*, 14, 1130610. doi: 10.3389/fpsy.2023.1130610
- Chang, H., Shelleby, E. C., Cheong, J., & Shaw, D. S. (2012). Cumulative risk, negative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transition to school: A mediated moderation model. *Social Development*, 21(4), 780-800.
-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3), 371-394.
- Christensen, H., Batterham, P. J., Soubelet, A., & Mackinnon, A. J. (2013). A test of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n a large community-based cohor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4(3), 225-234.
- Cluver, L., Orkin, M., Boyes, M. E., & Sherr, L. (2015).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al behavior,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South Africa: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7(1), 52-59.
- Cooper, S., Lund, C., & Kakuma, R. (2012). The measurement of poverty in psychiatric epidemiology in LMICs: crit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 1499-1516.
- Coppersmith, D. D., Nada-Raja, S., & Beautrais, A. L. (2017).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1, 89-9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Currier, D., Patton, G., Sanci, L., Sahabandu, S., Spittal, M., English, D., ... Pirkis, J. (2021). Socioeconomic disadvantage,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in young men in emerging adulthood. *Behavioral Medicine*, 47(1), 31-39.
- Dai, J., Chiu, H. F. K., Conner, K. R., Chan, S. S. M.,

- Hou, Z. J., Yu, X., & Caine, E. D. (2011).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rural Chinese aged 16–34 years—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the context of a transforming Chin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0*(3), 438–446.
- Ellis, B. J., Sheridan, M. A., Belsky, J., & McLaughlin, K. A. (2022). Why and how does early adversity influence development? Toward an integrated model of dimensions of environmental exper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2), 447–471.
- Evans, G. W. (2003). A multimethodological analysis of cumulative risk and allostatic load among rura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9*(5), 924–933.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92.
- Evans, G. W., & Cassells, R. C. (2014). Childhood poverty, cumulative risk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emerging adult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3), 287–296.
- Evans, G. W., & Kim, P. (2012). Childhood poverty and young adults' allostatic load: The mediating role of childhood cumulative risk exposure. *Psychological Science, 23*(9), 979–983.
- Evans, G. W., & Kim, P. (2013). Childhood poverty, chronic stress, self-regulation, and coping.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7*(1), 43–48.
- Evans, G. W., Li, D., & Whipple, S. S. (2013). Cumulative risk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9*(6), 1342–1396.
- Evans, G. W., Wells, N. M., & Moch, A. (2003). Housing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Social Issues, 59*(3), 475–500.
- Ewing, L., Hamza, C. A., & Willoughby, T. (2019). Stressful experiences, emotion dysregul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 1379–1389.
- Fisher, M., & Baum, F. (2010). The social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health promo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4*(12), 1057–1063.
- Fox, K. R., Millner, A. J., Mukerji, C. E., & Nock, M. K. (2018). Examining the role of sex in self-injurious thoughts and behavio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6*, 3–11.
- Franklin, J. C., Ribeiro, J. D., Fox, K. R., Bentley, K. H., Kleiman, E. M., Huang, X., ... Nock, M. K. (2017). Risk factors fo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 meta-analysis of 50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3*(2), 187–232.
- Gadalla, T. M. (2009). Determinants, correlates and media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68*(12), 2199–2205.
- Gallie, D., Paugam, S., & Jacobs, S. (2003). Unemployment,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Is there a vicious circle of social exclusion? *European Societies, 5*(1), 1–32.
- Gratz, K. L., Spitznagel, T. L., & Tull, M. T. (2020).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The roles of emotion regulation self-efficacy and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6*(9), 1653–1667.
- Hamza, C. A., Stewart, S. L., & Willoughby, T. (2012). Examining the link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 integrated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6), 482–495.
- Hasking, P., Whitlock, J., Voon, D., & Rose, A. (2017). A cognitive-emotional model of NSSI: Using emotion regulation and cognitive processes to explain why people self-injure. *Cognition and*

- Emotion*, 31(8), 1543-1556.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Iemmi, V., Bantjes, J., Coast, E., Channer, K., Leone, T., McDaid, D., ... Lund, C. (2016). Suicide and poverty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Psychiatry*, 3(8), 774-783.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E., Ribeiro, J. D., & Silva, C. (2012). Nonsuicidal self-injury, suicidal behavior, and their co-occurrence as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5), 342-347.
- Joiner Jr, T. E., Van Orden, K. A., Witte, T. K., Selby, E. A., Ribeiro, J. D., Lewis, R., & Rudd, M. D.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634-646.
- Kiekens, G., Hasking, P., Boyes, M., Claes, L., Mortier, P., Auerbach, R. P., ... Bruffaerts, R. (2018). The associations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first onset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39, 171-179.
- Kim, P., Evans, G. W., Angstadt, M., Ho, S. S., Sripada, C. S., Swain, J. E., ... Phan, K. L. (2013).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and chronic stress on emotion regulatory brain function in adulthoo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46), 18442-18447.
- Kim, J. L., Kim, J. M., Choi, Y., Lee, T. H., & Park, E. C. (2016).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linkage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6(5), 588-597.
- Kinchin, I., & Doran, C. M. (2018). The cost of youth suicide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4), 672. doi: 10.3390/ijerph15040672
- Klonsky, E. D. (2007). The functions of deliberate self-injury: A review of the evid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2), 226-239.
- Klonsky, E. D. (2011). Non-suicidal self-injury in United States adults: prevalence, sociodemographics, topography and functions.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81-1986.
- Klonsky, E. D., & May, A. M. (2015). The three-step theory (3ST): A new theory of suicide rooted in the "ideation-to-action"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2), 114-129.
- Klonsky, E. D., May, A. M., & Glenn, C.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attempted suicide: converging evidence from four sam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231-237.
- Lanza, S. T., Rhoades, B. L., Nix, R. L., Greenberg, M. T.,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0). Modeling the interplay of multilevel risk factors for future academic and behavior problems: A person-centered approa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2), 313-335.
- Lee, J. H. (2022). Housing quality determinants of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by age and gender. *Housing Studies*, 1-27. doi: 10.1080/02673037.2022.2056151
- Liberzon, I., Ma, S. T., Okada, G., Shaun Ho, S., Swain, J. E., & Evans, G. W. (2015). Childhood poverty and recruitment of adult emotion regulatory neurocircuitry.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0(11), 1596-1606.
- Liu, R. T. (2023). The epidemiology of non-suicidal

- self-injury: lifetime prevalence,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orrelates, and treatment use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s in England. *Psychological Medicine*, 53(1), 274-282.
- Lloyd-Richardson, E. E., Kelley, M. L., & Hope, T. (1997).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provisional prevalence rate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New Orleans, LA.
- Lynam, D. R., Caspi, A., Moffit, T. E., Wikström, P. O., Loeber, R., & Novak, S. (2000). The interaction between impulsivity and neighborhood context on offending: the effects of impulsivity are stronger in poorer neighborhood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4), 563-574.
- Madigan, A., & Daly, M. (2023).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the ro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26, 36-43.
- Matney, J., Westers, N. J., Horton, S. E., King, J. D., Eaddy, M., Emslie, G. J., ... Stewart, S. M. (2018). Frequency and methods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relation to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2(1), 91-105.
- McLaughlin, K. A., & Sheridan, M. A. (2016). Beyond cumulative risk: A dimensional approach to childhood advers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5(4), 239-245.
- Miller, A. B., Esposito-Smythers, C., & Leichtweis, R. N. (2015). Role of social support i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3), 286-292.
- Mitchell, S. M., Cukrowicz, K. C., Van Allen, J., & Seegan, P. L. (2015). Moderating role of trait hope in the relation between painful and provocative events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Crisis*, 36(4), 249-256.
- Money, T. T., & Batterham, P. J. (2021). Sociocultural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suicide in Australia. *Death Studies*, 45(3), 219-225.
- Mortier, P., Cuijpers, P., Kiekens, G., Auerbach, R. P., Demyttenaere, K., Green, J. G., ... Bruffaerts, R. (2018). The prevalence of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urs among college studen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48(4), 554-565.
- Moos, R. H., & Moos, B. S. (1981). *Family Environment Scal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uehlenkamp, J. J., & Gutierrez, P. M. (2007). Risk for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who engage in non-suicidal self-injur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1), 69-82.
- Nock, M. K. (2009). Why do people hurt themselves? New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elf-inju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2), 78-83.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Alonso, J., Angermeyer, M., Beautrais, A., ... Williams, D. (2008a). Cross-nation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plans and attemp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2(2), 98-105.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 R. C., & Lee, S. (2008b).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1), 133-154.
- Nock, M. K., & Favazza, A. R. (2009). Nonsuicidal self-injury: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M. K. Nock (Ed.), *Understanding nonsuicidal self-injury: Origin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ck, M. K., & Prinstein, M. J. (2004). A functional

-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elf-mutilative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5), 885-890.
- OECD. (2020). *Compare your income - Methodology and conceptual issues*. <https://www.oecd.org/statistics/Compare-your-income-methodology.pdf>에서 자료 얻음.
-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oecd-employment-outlook_19991266에서 자료 얻음.
- Ong, E., & Thompson, C. (2019). The importance of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the occurrence of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122(4), 1192-1210.
- Ordóñez-Monak, I., Arroyave, I., & Cardona, D. (2021). Educational inequalities in suicide in a middle-income country: A socioeconomic approach of mental heal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51(2), 289-300.
- Ougrin, D., Zundel, T., Kyriakopoulos, M., Banarsee, R., Stahl, D., & Taylor, E. (2012). Adolescents with suicidal and nonsuicidal self-harm: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to therapeutic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1-20.
- Park, H., In, S., & Hur, J. W. (2022).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Kore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8(5), 1127-1134.
- Paul, K. I., & Moser, K. (2009). Unemployment impairs mental health: Meta-analy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3), 264-282.
- Pirkis, J., Gunnell, D., Hawton, K., Hetrick, S., Niederkrotenthaler, T., Sinyor, M., ... Robinson, J. (2023). A public health,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Crisis*, 44(2), 85-92.
- Posner, K., Oquendo, M. A., Gould, M., Stanley, B., & Davies, M. (2007). Columbia Classification Algorithm of Suicide Assessment (C-CASA): classification of suicidal events in the FDA's pediatric suicidal risk analysis of antidepressa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7), 1035-1043.
- Raver, C. C. (2004). Placing emotional self-regulation in sociocultur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Child Development*, 75(2), 346-353.
- Raver, C. C., Jones, S. M., Li-Grining, C., Zhai, F., Bub, K., & Pressler, E. (2011). CSRP's impact on low-income preschoolers' preacademic skills: self-regulation as a mediating mechanism. *Child Development*, 82(1), 362-378.
- Rehkopf, D. H., & Buka, S. L.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e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area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36(2), 145-157.
- Reynolds, W. M.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beiro, J. D., Witte, T. K., Van Orden, K. A., Selby, E. A.,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14). Fearlessness about death: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revision to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6(1), 115-126.
- Ridley, M., Rao, G., Schilbach, F., & Patel, V. (2020). Poverty, depression, and anxiety: Causal evidence and mechanisms. *Science*, 370, 1289. doi: 10.1126/science.aay0214
- Robinson, K., Brocklesby, M., Garisch, J. A., O'Connell, A., Langlands, R., Russell, L., ... Wilson, M. S. (2017).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New Zealand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nxiety.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46(3),

- 126-136.
- Rogers, M. L., Bauer, B. W., Gai, A. R., Duffy, M. E., & Joiner, T. E. (2021). Examination of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33*(5), 464-470.
- Roskam, I., Vancorenland, S., Avalosse, H., & Mikolajczak, M. (2022). The missing link between poverty and child maltreatment: Parental burnout. *Child Abuse & Neglect, 134*, 105908. doi: 10.1016/j.chiabu.2022.105908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in psychopathology. Vol. 8: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pp. 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23-356.
- Saxena, S., Thornicroft, G., Knapp, M., & Whiteford, H. (2007). Resources for mental health: scarcity, inequity, and inefficiency. *The Lancet, 370*(9590), 878-889.
- Schönfelder, A., Rath, D., Forkmann, T., Paashaus, L., Stengler, K., Teismann, T., ... Glaesmer, H. (2021).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uicide attempts mediated by nonsuicidal self-injury and pain toleranc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8*(1), 189-199.
- Seo, J. W., & Kwon, S. M. (2018). Preliminary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fearlessness about dea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8*(3), 305-314.
- Shim, S. H., Kwon, Y. J., Lee, D., Lee, H. S., Jin, M. J., & Kim, J. S. (2022). Impa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on suicide attempts: a cross-sectional study. *Psychiatry Investigation, 19*(5), 362-370.
- Silva, M., Loureiro, A., & Cardoso, G. (2016). Social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30*(4), 259-292.
- Silverman, M. M., Berman, A. L., Sanddal, N. D., O'carroll, P. W., & Joiner Jr, T. E. (2007). Rebuilding the tower of Babel: a revised nomenclature for the study of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s. Part 2: Suicide-related ideations, communications, and behavi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3), 264-277.
- Sinyor, M., Tse, R., & Pirkis, J. (2017). Global trends in suicide epidemiology.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0*(1), 1-6.
- Smith, P. N., & Cukrowicz, K. C. (2010). Capable of suicide: A functional model of the acquired capability component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0*(3), 266-275.
- Smith, A. R., Ribeiro, J. D., Mikolajewski, A., Taylor, J., Joiner, T. E., & Iacono, W. G. (2012). An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and genetic contributions to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behavior among male twins. *Psychiatry Research, 197*(1-2), 60-65.
- Sueki, H. (2019). Relationship between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uicidal ideation: a cross-sectional study.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4*(1), 76-82.
- Swannell, S. V., Martin, G. E., Page, A., Hasking, P., & St John, N. J. (2014). Prevalence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nonclinical samples: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reg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4*(3), 273-303.
- Tate, M., Sinha, R., & Wemm, S. (2023). Cumulative

- advers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0*, 277-282.
- Thompson, R. G., Alonzo, D., Hu, M. C., & Hasin, D. S. (2017). Substance use disorders and poverty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adult first-time suicide ideation or attempt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3*, 324-333.
- Toprak, S., Cetin, I., Guven, T., Can, G., & Demircan, C. (2011). Self-harm,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ollege students. *Psychiatry Research*, *187*(1-2), 140-144.
- Trentacosta, C. J., Hyde, L. W., Shaw, D. S., Dishion, T. J., Gardner, F., & Wilson, M. (2008). The relations among cumulative risk, parenting, and behavior 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1), 1211-1219.
-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Coughlan, B., & Reijman, S. (2020). Annual research review: Umbrella synthesis of meta-analyses on child maltreatment antecedents and intervention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3), 272-290.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Wagner, B. M. (1997).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2), 246-298.
- Whitlock, J., Muehlenkamp, J., Eckenrode, J., Purington, A., Abrams, G. B., Barreira, P., & Kress, V. (2013). Nonsuicidal self-injury as a gateway to suicide in you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4), 486-492.
- Willoughby, T., Heffer, T., & Hamza, C. A. (2015). The link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4*(4), 1110-1115.
- Wolff, J. C., Thompson, E., Thomas, S. A., Nesi, J., Bettis, A. H., Ransford, B., ... Liu, R. T. (2019). Emotion dysregul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Psychiatry*, *59*, 25-3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Suicid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suicide> 에서 자료 얻음.
- Yurkowski, K., Martin, J., Levesque, C., Bureau, J. F., Lafontaine, M. F., & Cloutier, P. (2015). Emotion dysregulation mediates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difficulties on non-suicidal self-injury behavior in young adults. *Psychiatry Research*, *228*(3), 871-878.
- Zhu, Y., Nam, S., Quan, L., Baek, J., Jeon, H., & Tang, B. (2022). Linking suicide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South Korea: An investigation of structural determinan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1022790. doi: 10.3389/fpubh.2022.1022790.

원고접수일: 2024년 1월 9일

논문심사일: 2024년 5월 1일

게재결정일: 2024년 5월 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4, 567 - 599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nd Suicidal Behavior in Early Adulthood: Non-Suicidal Self-Injury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s Sequential Mediators

Chanhee Park Hyein Chang Jibum Kim Tae-Young Pak Hyesun Hwang
Department of Department of Department of
Psychology Sociology Consumer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which includes variou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verty, can predict suicidal behavior in young adults during early adulthood. We also examined how non-suicidal self-injury (NSSI) and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play a sequential mediating role in this process. We recruited a total of 544 adults (302 females, 242 males) whose household income in 2022 was below 60% of the Korean base median income. Participants completed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assessed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including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status, housing environment, 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Additionally, participants provided information on NSSI, the acquired capability,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e analyzed the data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d the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showed that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significantly predicted suicidal behavior, and this association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NSSI and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vealing the underlying mechanisms through which multidimensional poverty can influence suicidal behavior and highlights NSSI and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s potential targets for intervention.

Keywords: poverty,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non-suicidal self-injury,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uicidal behavior